

## 2006 균형발전정책의 추진방향

김진영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장

### 1. 머리말

지난 60년대이후 초고속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수도권 집중억제 위주의 소극적인 방법에 치중하여 지역격차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해소에 다소 미흡하였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지방의 창의와 자율성에 입각한 지역발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과 균열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화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사회 구축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2004. 1)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가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 과제를 발굴 수행해 나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통한 선진한국 실현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아래 혁신 및 특성화 기반 구축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양대 정책 목표를 마련하고 제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 구조 형성이라는 4개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통합적 균형을 통한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지역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특성화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다양한 지역발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지역의 특화 자연자원, 인적자원, 노하우를 한데 묶는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통해 지역의 내생적 발전 역량을 강화시켜야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II. 균형발전정책의 추진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발전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만,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상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개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정부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사업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투자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관련 부처간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 추진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지역혁신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균특회계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동안 지역의 내생적 발전역량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그간 추진해오고 있는 오지·도서·접경지역 등 낙후지역개발사업과 신활력지원, 소도읍육성,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1.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

#### (1)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에서는 낙후된 오지·도서 및 접경지역에 대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지개발촉진법(법률 제4060호, '83.12.31)』, 『도서개발촉진법(법률 제3923호, '86.12.31)』 및 『접경지역지원

법(법률 제6185호, '00.1.21)을 제정하고 각각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1차 10개년(90~99), 2차 5개년사업(00~04)을 완료하였고, 3차5개년계획사업('05~'09)을 새로이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97년도에 1차 10개년 계획이 완료되어 '98년부터 2차 계획에 의거 07년까지 10개년 간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03년 2월「접경지역지원 10개년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오지·도서·접경지역 기본계획 ●

구 분	오지종합개발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접경지역지원사업계획
기 간	• 05 ~ 09(5년간)	• 98~ 07(10년간)	• 03 ~ 12(10년간)
대 상	• 361개 오지면	• 410개 도서	• 98개 읍면동
사업량	• 3,382건	• 3,963건	• 274건
사업비	• 9,204억원 (국비6,443, 지방비 2,761)	• 10,717억원 (국비 7,472, 지방비 3,207, 민용자등 38)	• 9,671억원 (국비 6,726, 지방비 2,883, 민용자등 62)

## (2) 추진실적

### 가) 오지종합개발사업 ('90~'05)

제1차 10개년(90~99)계획, 제2차 5개년(00~04)계획 기간 동안 농로포장, 마을안길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에 12,503억을 투자 8,099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영농단지 조성, 저온저장고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1,978억을 투자 1,854건의 사업을 통해 기계화 영농 취수원 확보 등 소득원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하수도정비, 마을회관 신축, 소공원 정비 등 문화복지 시설에 2,605억원 2,654건을 투자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정주여건을 개선하였다.

05년도부터 시작된 제3차 5개년(05~09)계획은 기존 생활인프라 확충과 병행 소득기반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사업규모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도입, 보다 규모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낙후지역개발 추진협의체를 운영토록 하여 여러 다양한 낙후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추진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 나) 도서종합개발사업 ('88~'05)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개발사업은 전국 492개 개발대상 도서에 대하여 '88~05년까지 1조 8,372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생산기반시설, 환경복지시설 등 6,47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도서종합개발 제2차년도인 '98~04년까지 분야별 추진내용은 생활기반시설 48.6%, 생산기반시설 43.7%, 환경개선시설 등 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선착장, 물양장, 호안도로 개설 등 도서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위주의 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문화·복지분야의 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는 8개시도, 35개 시군구, 176개 도서에 대하여 급수·호안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183건에 748억원, 물량장·방파제 등 생산기반시설 186건에 479억원 등 1,286억원을 투자하여 지리적으로 열악한 도서주민 59천 가구, 145천명에게 수혜를 주었다.

### ● 오지·도서·접경지역 추진실적 ●

구분	오지종합개발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기간	• 05~09 (16년간)	• 88~05 (18년간)
대상	• 399개 오지면	• 492개 도서
사업량	• 13,797건	• 6,472건
사업비	• 18,654억원	• 25,579억원

### 다) 접경지역지원사업 ('03~'12)

접경지원사업의 투자계획은 1단계 2003~2007년(5개년), 2단계 2008~2012까지(5개년)으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 확정하고 사업규모, 국고지원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투자를 확정해 나가고 있다.

예상되는 투자비는 총 5조1,278억원으로 시도별 투자규모는 경기도가 총사업비의 48%, 강원도가 46%, 인천광역시가 6%순이다.

구 분	사업량 (건)	사 업 비(억원)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기타
계	274	51,278	21,649	8,071	6,213	15,345
인천광역시	52	3,364	2,036	603	557	168
경기도	41	24,418	9,459	4,866	2,280	7,813
강원도	181	23,496	10,154	2,602	3,376	7,364

접경지역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1,304억원(국비 900억원, 지방비 404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확·포장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나 재정 투입측면에서는 계획대비 54.7% 수준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사업량(건)	2003~2005까지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13	130,456	90,000	40,456
인 천	56	22,285	15,600	6,685
경 기	181	54,560	36,874	17,686
강 원	76	53,611	37,526	16,085

### (3) 향후발전방향

첫째, 낙후지역의 특성을 살린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낙후지역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는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지역의 근원적 낙후성 탈피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그간의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낙후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전략을 재정립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 개선이다.

앞으로는 단위사업별 투자방법을 지양하고 사업추진 평가에 의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에 역동성을 가미하고 사업집행방식도 포괄적 사업비 형식으로 배정하여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실효성있는 사업성과 창출이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는 낙후된 오지·도서에 대한 투자가 적지 않았지만 타지역 수준의 종합적인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 투자비율이 상승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비 부담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2006 사업계획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제3차 5개년(05~09)계획상의 2006년도 오지면을 중심으로 207개 오지면에 1,547억(국비 1,083억, 지방비 464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간의 균등배분 방식을 탈피하여 개발수요를 감안한 투자방식을 채택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주민의 소득기반 창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서개발사업은 제2차 10개년(98~07)계획중 9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주로 생산소득기반시설 위주의 집중투자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2006년도에는 총 145개 도서에 1,286억(국비 900억, 지방비 386억)을 투자하고, 특히 3개지구의 연도·연육교건설(시범)사업에 19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총 686억원(국비 480억, 지방비 206억)을 투자하여 지역의 기초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을 살린 생산·소득증대사업, 각종 개발사업과의 연계추진 등 대규모 집중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높이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2. 신 활력사업 추진

### (1) 추진배경

그동안 다양한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의 개선, 문화복지시설의 증대, 지역생산기반 조성 등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부재와 지역이 자립발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의 축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낙후지역을 “新活力지역”으로 변화시켜 국민소득 2만불시대 달성과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4년 7월 5일 국정과제 보고회의시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가 주관부처로 선정되었고 균형위 및 관계 8개부처에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공동추진단」 참여를 통해 신활력사업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 (2) 사업의 성격

신활력사업은 지역의 자립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으로 관 주도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주로 추진하던 기존 낙후사업과는 달리, 신활력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포괄적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내 산·학·연과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장기적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양성, 향토자원개발, 소득 및 고용창출사업들을 발굴·추진하는 것이다.

신활력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컨설팅을 거쳐,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각종 혁신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과,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참여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을 발전을 주도할 혁신리더로 양성하고 조직화 해 나감으로써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혁신의 시스템화가 중요하다.

### (3) 지금까지 추진현황

2004년 9월 인구·산업경제·재정적 측면의 3개분야 4개지표에 따라, 전국 234개 기초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경제기반이 부족하 여 발전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고시하였다.

이후, 신활력시·군에서는 주민참여와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통해 대상사업 발굴과 사업계 획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5년 2월에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자문위원 의 자문·컨설팅을 통해 시·군별 사업계획서를 최종 확정하였다(05.4.30).

#### ● 신활력사업 계획 ●

사업년도	사업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05~'07	8,301	5,900	1,305	1,096
'05	2,675	2,000	379	296
'06	2,770	1,900	451	419
'07	2,856	2,000	475	381

유 형	건수 (총70건)	대 표 사 업 (예시)
• 향토자원 개발 (농특산물)	35건	• 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함평군) • 공룡나라 웰빙농업(고성군)
• 지역문화관광 개발	12건	• 친환경·유기농 그린투어리즘(화천군) •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영월군)
• 지역이미지 마케팅	7건	• HAPPY 700 브랜드 강화(평창군) • 생태건강산촌만들기 지역마케팅(진안군)
• 교육·인재육성	5건	• 외국어교육 특구조성(창녕군)

• 생명·건강산업육성	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정선군)</li> <li>• 인삼·약초를 통한 오감체험형건강사업(금산군)</li> </ul>
• 해양·수산자원개발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생물산업 경쟁력강화(완도군)</li> <li>• 블루투어리즘 및 특산품 브랜드화(영덕군)</li> </ul>

또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력보강 및 사업추진조직을 정비하고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또한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자문가(Family Doctor) 제도를 도입, 시군별로 관계전문가 1명씩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자문·지도를 받도록 하였다. Family Doctor 들은 자발적으로 「Family Doctor 전국협의회」를 구성하여 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상호 정보공유와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토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된 신활력사업은 열악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진방식의 사업을 도입하여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4) 향후 추진계획

사업추진 과정에 제기되었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구분 명확화, 주민참여 활성화, 유사사업의 연계추진방안 등에 대해 보완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공동으로 권역별 현지방문을 통해 지원·지도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2006년도에는 보다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사업추진 우수사례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상호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문위원회 및 FD와 협력하여 수시 지원지도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신활력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당초 목적인 대로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틀을 다지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3. 소도읍육성사업

#### (1) 추진배경

읍(소도읍)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 완충역할을 하면서 배후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60년대 중반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산업화가 시작된 70년대 초부터는 도시의 비정상적 거대화에 밀려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01.1월)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읍지역을 배후 농촌사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 (2) 그간 추진현황 및 평가

지난 '72년 가로변 간판정비, 재래시장 환경정비 등 읍지역의 환경을 정비하는 “도읍가꾸기사업”에서 시작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확대된 사업은 '02년까지 총 9,91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4천여개소의 가로를 정비하는 등 총 92천여건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읍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배후 농어촌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었으나 읍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민원 해결 위주의 단순 사업만 추진하는 등 침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3) 투자방향 및 발전전략

인구과밀의 거대도시 확산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화됨은 물론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읍지역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03~12년까지 10년간 총 12조원이 투자되는 소도읍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첫해인 03년부터 '05년까지 43개읍에 1,77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06년도에는 23개 소도읍을 추가 선정하여 1,234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개발콘텐츠 (예시) ●

분 류	입지적 특성	육 성 방 향
관광 소도읍	문화유적·온천·국립공원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소도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경관 등의 부존 관광자원 보존 중점</li> <li>• 교통·숙박 등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위락시설 등 유치</li> <li>• 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식함양 사업 병행</li> </ul>
자원보유 소도읍	지하자원의 매장·채굴·생산 등의 특수성이 있는 소도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굴한 광물의 저장·수송·인프라 확충</li> <li>•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위생시설, 문화복지시설을 확보</li> </ul>
해안 어업형	어항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갖춘 소도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실정에 맞는 어항기반시설 확충</li> <li>• 수산물 저장·판매 및 냉동·가공시설 유치</li> <li>• 입지적 특성에 걸맞는 육운·해운 교통체계 구축</li> </ul>
교육·문화 소도읍	교육시설이 다수위치한 대도시 주변 소도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교육시설 확충</li> <li>• 외부지역 유학생 수용을 위한 주거시설 확충</li> <li>• 위락시설 등 교육분위기 저해시설은 입지 제외</li> </ul>
접경지역 소도읍	대규모군이 주둔하고 군사시설이 위치한 소도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가족 주거생활 지원 시설 확충</li> <li>• 외지 면회객 및 군인 등을 상대로한 시장유통시설 정비</li> </ul>

소도읍 육성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강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 공모제와 재원의 선택과 집중방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 지원과 책임 추진을 약속하는 육성협약제도 등 종래의 지역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도입하고 있어 소도읍이 진정한 의미에서 배후 농촌사회의 거점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4.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1) 추진배경

60년대 후반 농어촌지붕개량사업에서 시작하여 '76년부터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마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발전되었으며, '91년에는 마을하수도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심화되고 있던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예방하는 등 생활편익과 환경이 조화된 종합적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90~'05) ●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계획		2005까지 실적		빈집정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4,324,919		5,366,378		370,133
주택개량 (동)	520,393	9,525,629	386,203	74	4,158,029	6,000
마을정비 (마을)	8,498	3,733,504	6,675	79	1,187,104	218
빈집정비 (동)	78,808	1,065,786	59,218	75	21,245	6,611

### (2) 그간의 투자실적 및 평가

지난 '76년부터 05년까지 총 5조 3,663억원을 투자한 결과 386천동의 노후불량주택이 개량되었고 903천여 가구가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게 되었으며, 6,675개 마을의 안길이 확·포장되고 마을회관이 건립되는 등 주민 정주환경이 향상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농촌빈집 59천여 동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으로 농어촌 주거환경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도시형 주거문화 생활을 희망하는 농어민의 욕구가 어느정도 충족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소규모 분산지원됨에 따른 투자효과의 저하, 지역별·마을별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추진 등은 앞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된다.

### (3) 향후 투자방향 및 발전전략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은 08. 12월에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법의 시효를 농어촌발전특별회계 지원 시점인 201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8조 9,580억원을 투자하여 134천동의 노후주택 개량 1,823개 농어촌마을정비, 19천동의 빈집철거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수지역의 소규모 분산투자에서 선택적 집중투자로, 획일적 개발에서 특성화·차별화된 개발로 사업추진방향을 전환하고, 사업추진에 적극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우수자치단체에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 (4) 2006 사업계획

06년도에는 총 3,45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519동의 불량주택 개량과 128지구의 하수도 시설 및 마을의 기반시설 확충, 6,247천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며,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관련부처의 시책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5.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 (1) 현황 및 실태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심각한 교통정체와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증진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절약을 위해 '95.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자전거도로·주차장 등 관련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자전거 통행방법, 안전문제 등 자전거이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추진해 오고있다.

### (2) 그간의 투자실적 및 평가

제1차 5개년( '98~'02) 기간동안 총 4,789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4,419km와 자전거 보관대 190천대분, 횡단보도턱 37천개소를 정비하였고, 제2차 5개년( '03~'07)계획중 '03~'05년까지 1,765억원을 투자, 자전거도로 1,246km 자전거보관대 57천대분 등 자전거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였다.

####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98~'05사업 추진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비	사 업 량		
		자전거도로	보 관 대	횡단보도턱 정 비
사업규모	6,554	5,665km	247천대분	58천개소

또한 잠재되어 있는 자전거이용 수요를 유발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타기 대행진”, “국토순례” 등 시민·단체·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행사와 시민토론회, 대국민 홍보·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 (3) 향후 투자방향 및 발전전략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투자 외에도 각종 도시계획

이나 택지·공업·관광단지조성, 공공도로의 개설시에 계획단계부터 자전거도로·보관대를 설치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각급 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 대표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공직자·근로자·학생들이 적극 동참해 오도록 솔선수범해 나가야 하며, 자전거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 문화에 대한 바른지식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자전거이용 호응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4) 2006 사업계획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06년부터 선택과 집중방식인 상향식 공모제를 도입, 중앙평가단의 평가를 통하여 최종 선정된 15개 시군구에 분권교부세 92억원을 지원하여 테마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적 에너지절약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각급 관공서 출퇴근 및 업무용 교통수단을 자전거로 대체하는 등 범 국민적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III. 맺는말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오지·도서·접경지역 등 낙후지역개발, 신활력지원, 소도읍 육성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균형발전사업은 국가사회통합 차원에서 국가의 특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지방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참여하에 지역의 특성있는 향토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다양한 중앙정부의 시책과 사업이 통합·조정되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전략이 추구하는 통합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기초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문화·여가·복지·의료

등의 수준을 높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메니티 전략으로 승화되어야 하겠다.

둘째, 현재의 분산적 균형발전사업 체제에서 '통합적 사업체제' 즉 일정한 계획공간내에서 도시와 농촌, 중심지와 배후지,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을 일체화된 공간으로 파악하고 일원화된 개발을 통해 기능적으로 연계·통합된 개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별 계획(안)의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포괄보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정기능 등에 따라 통합과 조정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별사업을 집행하는 중앙부처에서도 협의회의 또는 통합사업추진 지침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수준이나 지방재정력 등을 감안, 국가지원규모나 자치단체 부담비율 등을 차등화하여 지역격차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정책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방향의 토대위에 지역의 내생적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써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

